

소송에...예산난에...동구청-교육청 잇단 갈등

월남유치원 부지확보 못해 개원 또 연기

지원초교 폐교부지 보상문제 놓고 소송전도

광주 동구에 신설하는 월남유치원의 개원이 또 다시 늦춰졌다. 당초 올해 3월 개원에서 내년 3월로 한차례 연기된 월남유치원은 사업시행자인 광주 동구청이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 3월 개원이 물거품됐다. 앞으로 2개월내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9월 개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동구 대남동에 원아 180명을 수용하는 9개 학급(일반 8개, 특수 1개) 규모의 월남유치원 개설을 추진 중이다. 위치는 동구청이 추진하는 2588세대 대형 택지개발지구인 월남도시개발지구다.

동구청이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면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유치원 부지 5193㎡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쳐지만, 예산난을 겪고 있다.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 건립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월남유치원은 당초 올해 3월 개원 예정이었다가 내년 3월로 연기됐고,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 3월 개원도 불가능하게 됐다.

공사기간이 최소 1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달 내에 서둘러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입찰공고 2개월, 공사기간 10개월이 걸리는 탓에 3월 개원은 물 건너갔다. 지체 2개월가량 더디게 진행된다면 9월 개원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동구 월남지구에는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없어 유치원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유아학습권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과 시교육청은 지원초교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폐교 부지를 신설학교 부지로 포함하면서 보상문제로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곳에 학교를 짓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재산인 폐교부지를 동구가 매입한 뒤 다시 무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구청은 “1997년에 옛 지원초를 폐교할 당시 시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폐교안을 가결했다. 기존의 지원초 터는 신설 용지의 무상공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땅에 학교를 짓는데 왜 동구가 그 땅을 유상으로 사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는 것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말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원초등학교 건립 부지 매매계약금 3억1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 이례적인 소송으로 광주지법은 이달 30일 2차 변론기일을 연두 다음달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9:25
해질 19:46 달지기 23:13

식중독 조심하세요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이 30℃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19/29	보성	흐림	17/27
목포	흐림	18/26	순천	흐림	19/28
여수	흐림	19/25	영광	흐림	18/27
나주	흐림	18/30	진도	흐림	18/26
완도	흐림	18/27	전주	구름많음	18/30
구례	흐림	17/29	군산	구름많음	17/27
강진	흐림	18/28	남원	구름많음	18/29
해남	흐림	18/27	홍산도	흐림	16/22
장성	흐림	17/29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남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남바다(동)	서~북서	0.5	북~북동	0.5~1.0
	서부	남바다(서)	북~북동	0.5~1.5	북~북동

생활지수

경고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주간 날씨

날짜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씨	☀️	☀️	☁️	☀️	☀️	☀️	☀️
기온	19/30	19/29	20/28	19/29	19/29	19/29	19/29

전남 268개 학교 급식 중단 없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철회

영양사·조리사 등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해당 지역 학교들은 급식 차질을 피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2016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로 구성된 전남교육공무직노조 공동교섭단과 협상 끝에 11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로써 전남 268개 학교는 우려했던 급식 차질을 피했다. 양측은 ▲정기상여금 연간 50만원 신설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을 월 25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확대 ▲명절휴가보전금 연 40만원에서 연 70만원으로 확대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가족수당 2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광주지부도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을 유보하고 교육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모내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광주동초교 충효분교(교장 심상화) 아이들이 8일 광주시 북구 석곡동 학교는 체험학습장에서 모내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모내기하는 것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은 신기 한 듯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태청산 풍력발전소 건립’ 무산

군 “주민 건강·재산권 침해”...타당성 검토 ‘불가’ 결정

최근 논란이 된 ‘장성 태청산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무산됐다. 장성군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건립 불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두서 장성군수는 8일 삼계면사무소에서 열린 ‘삼계면 사회단체·이장 연석회

의’에 참석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건립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 군수는 이날 “풍력발전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대안이자 적극 권장해야 할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절차

를 준수하고 행정절차를 처리해왔다”면서 “이번 태청산 내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역민의 뜻을 수용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 끝에 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성지역에서는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와 소음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역풍과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군수는 군에서 아무런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과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필요이상으로 여론을 왜곡시킨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감을 전했다.

유 군수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정 속에서도 군의 결정을 기다려준 지역주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불거진 역풍과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군수는 군에서 아무런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과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필요이상으로 여론을 왜곡시킨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감을 전했다.

유 군수는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정 속에서도 군의 결정을 기다려준 지역주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서서 군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탄광 폐광 결정 13일로 연기

화순군의회, 기재부 항의방문

화순탄광 폐광여부 결정이 일주일 가량 늦춰졌다. 8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13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8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13일로 연기됐다.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도 14일로 순연됐다.

당초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된 뒤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안에는 오는 2017년에 화순탄광을 시작으로, 2019년 강원

장성탄광, 2021년 강원 도계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내용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을 일주일 가량 연기하면서 폐광여부 결정도 지연됐다.

한편 화순군의회 이선 의장 등 의원 10명과 전남도의원, 군청·청사회단체 관계자 등 25명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항의방문해 화순탄광 폐광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순군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화순탄광 폐광 저지를 위한 법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만1000여명의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송기석의원, 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수사팀 설치 요구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8일 지역구인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 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설치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사기피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에 ‘오피스텔 분양사기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방경찰청 차원의 수

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파견·증원해 조속한 수사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잠정 시행사 대표의 밀항설까지 들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연루자 확인, 은닉 재산 환수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목,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 / 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